

### 목포시, 서울 청년 목포 정착지원 돕는다

지역상생 청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목포시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해 서울 청년들의 목포 정착을 지원한다.

창업과 고용기회를 갖기 쉽지 않은 서울 청년과 청년 인구가 부족한 지방을 연계해 지역의 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업으로 서울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돕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이다.

사업에는 목포시를 포함해 전국 13개 지자체가 참여해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개인 또는 3인 내외 팀이다. 예비 청년창업자뿐 아니라 기창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선발인원은 200명 내외(100개 내외 팀)로 해당 지자체 출신을 우대한다.

선발된 청년은 팀 당 최대 7,000만원까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목포시에서는 선정된 서울시 청년들이 목포에 내려와 활동하는 기간에 관광지 현장 답사 안내, 사무공간, 숙박, 교통, 식비 등을 지원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동네방네

#### 안동시, 학생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안동시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매 운동에 이어 농산물을 학생 가정으로 직접 배송하는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공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초·중·고·특수학교 총 58개교 1만7833명의 학생에게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안동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순차적으로 배송하게

된다. 농산물 꾸러미는 안동시 학교급식 실무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곡류, 채소류, 과일류 등 성장기에 좋은 농산물 혼합 꾸러미로 1인당 3만 원 상당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업은 학교급식 농산물 식자재 지원예산 5억3600여만 원(도비 15%, 시비 35%, 학교부담 50%)이 투입된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 파주시, 공공건축가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0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정부 지원금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2019년 총괄-공공건축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이은 두 번째 성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 전략 계획 수립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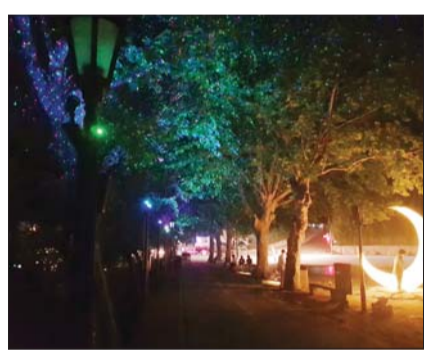
파주시는 지난해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과 건축분야 민간전문가 자문비용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도 민간전문가 자문비 등 운영비 6,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파주(교양)=안성기 기자

#### “담양의 밤하늘을 만끽하세요”... 야행 참가자 모집

담양군은 인문학 이야기와 함께 담양의 아름다운 밤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담양 별빛·달빛 야행(夜行)'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담양 별빛·달빛야행은 죽녹원 봉황루에서 인문학 명사와 함께 담양 인문학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대숲 산책로를 거닌 후, 영산강문화공원 버스킹 공연과 함께 플라타너스 숲 속에서 별빛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1회당 선착순 20명을 모집하며 참가



담양군 5월 담양의 밤하늘

비는 5000원. 담양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남=김태수 기자

###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깎아주고, 행정처분 감경

## 경북도, 유통 도매인 지원 '훈훈'

#### 구미·포항·안동 등 도내 3곳 건물가액 사용료 5%서 1%로 거래금액 미달 행정처분 감경

경북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유통 종사자(중도매인, 임대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감면, 중도매인 행정처분 감경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과 구미의 농산물도매시장은 이들에게 그동안 건물가액의 5%를 시설사용료로 부과했으나 이번 조치로 1%로 대폭 낮췄다.

경북도는 또 거래물량 감소로 최저거래금액이 미달된 중도매인에게는 행정처분을 줄여주기로 했다.

포항농산물도매시장은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분기별 2000만원에서 1500



경북도 농산물도매시장

만원으로 낮추고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은 분기별 3000만원에서 반기별 6000만원으로 낮추고 행정처분 대상 기간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중도매인은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액의 거래실적을 달성해야 하며 위반 때는 주의와 경고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경북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은 현

재 3곳이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포항농산물도매시장의 1분기 대비 거래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거래금액은 3.6% 줄었고, 구미농산물도매시장은 각각 17.4%, 14.4%씩 줄었다.

주요 거래품목에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채소류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구미와 포항과 달리 안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 1분기 대비 거래물량이 15.3% 늘었다. 사과가 거래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초중고생의 개학연기로 집에서 사과 소비가 대폭 늘어난 덕분으로 분석됐다.

김중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장기 계획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 김포시 "134억 아동돌봄포인트 상권에 활력"

#### 일주일 만에 20% 동네상권서 사용

김포시가 '아동돌봄포인트'가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

아동수당 수급자의 9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국민행복카드에 돌봄포인트를 일괄 지급하면서 양육비 부담 경감과 함께 경제 선순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한 아동돌봄포인트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8개 주요 카드사를 통해 보호자들에게 지급됐다.

지급된 금액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김포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되고



사우동의 한 상점의 모습

있다. 김포시의 지급대상 아동은 3만 3523명으로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아동 1인당 40만 원씩을 지급하고 총 예산 134억 원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된다.

김포시로부터 돌봄포인트를 받은 학부모들은 "신청 절차가 따로 없어 편리하다"거나 "사용처가 많아 실용적이

다", "병원·약국 등 아이들의 의료비 지출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장 상인 등 업주들도 "사용기한이 올해 말까지라 여유가 있어 좋다", "쉽게 쓸 수 있어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다"라며 소비 진작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효과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4월 13일~4월 30일 전국 아동돌봄포인트 수령 보호자 183만 명의 소비 내역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아동돌봄포인트의 약 20%가 지급 일주일 만에 사용됐으며 주요 소비처는 동네마트(37.9%), 일반 음식점(16.9%), 의류·잡화(8.7%), 병원·약국(8.5%) 순이었다.

/김포(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경북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긴급행정명령

경북도가 지역 유흥시설 집합 금지를 담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북도는 12일 오후 1시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소제 클럽(회관 형태 유흥시설 포함), 콜라텍, 감성주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최근 서울시 소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풍선효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감염병 선제적 유입 예방을 위한 대응 조치이다.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서울 이태원 소재 6개 클럽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자진신고 및 진단검사,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제18조 제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서울 소재 이태원 클럽 등에서 발생한 것처럼 느슨해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 도에서도 밀접접촉이 우려되는 유흥시설에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문봉현 기자

### 목포사랑상품권 추가발행 목포시 "경기활성화 유도"

목포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목포사랑상품권을 52억원 규모로 추가발행 한다고 12일 밝혔다.

상품권은 이번 달 15일부터 판매되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말 까지 10% 특별할인 판매 된다.

구매한도는 개인 1인당 월30만원, 법인 반기 1000만원으로 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목포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49개 금융기관에서 현금과 신분증만 있으면 구매할 수 있다. 지역 음식점, 마트, 주유소, 미용실, 도소매업, 숙박업, 전통시장 등 6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전남=양수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4 | 해질 / 19:33

5월 13일 (수) 음력 : 4월 21일

수도권 날씨 21 ~ 1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예보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